Symphony No. 2, Op. 16 "The Four Temperaments"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2, Op. 16, CNW 26 “The Four Temperaments”
작곡가: Carl Nielsen (1865–1931)
장르: 교향곡
작곡: 1901–1902년
헌정: Ferruccio Busoni
초연: 1902년 12월 1일 코펜하겐 Odd Fellow Palæet, Dansk Koncertforening 공연, Carl Nielsen 지휘
작품 범위: 네 악장 I. Allegro collerico, II. Allegro commodo e flemmatico, III. Andante malincolico, IV. Allegro sanguineo가 각각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의 성향을 음악의 운동으로 바꾼다.

IMSLP: Symphony No. 2, Op. 16 (Nielsen)

Wikipedia: Symphony No. 2 (Nielsen)

Carl Nielsen의 제 2번 교향곡은 여관 벽에 걸린 네 칸짜리 그림에서 출발했지만 , 그림의 인물을 차례로
묘사하는 음악에 머물지 않는다. 네 기질은 빠르기, 박자, 악센트, 선율의 호흡과 관현악의 밝기를 움직이는
원리로 바뀐다. 한 악장 안에서도 다른 기질이 스며들고, 네 악장은 대조와 발전을 거쳐 하나의 교향곡적
호흡을 만든다. 표제는 설명문이면서 동시에 음악의 에너지를 조직하는 장치다.

표제의 출발점

Nielsen은 1901년 무렵 마을 여관에서 강한 색채로 그려진 소박한 그림을 보았다. 그림은 네 칸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기질을 과장된 표정과 몸짓으로 보여 주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림을 우습게 여겼지만,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 네 악장 교향곡의 씨앗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 이야기는 작품의 착상에 관한 작곡가의 증언이며, 그림의 작가나 정확한 장소가 확인된 역사적 기록은 아니다.

제목의 네 기질은 고대와 중세의 의학 ·성격 분류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지침이 아니다. Nielsen은 특정한 심리 이론을 악보의 줄거리로 옮기기보다 , 성향이 음악 안에서 어떻게 과열되고 누그러지는지를 탐색했다. 제 1 악장의 격정은 두 번째 주제에서 잠시 가라앉고, 제 3악장의 우울은 종결부에서 비극적인 힘으로 부풀며, 제 4 악장의 밝은 움직임에도 현악의 어두운 되풀이가 남는다. 공식 Carl Nielsen 자료가 말하는 “경향 ”이라는
표현이 네 악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유다.

작곡과 초연

Nielsen은 첫 오페라 Saul og David를 작업하던 1901년에 제 2번 교향곡을 시작했다. Royal Danish Library 의 카탈로그는 제 1악장의 가장 이른 자료를 그해 12월로 특정하고, 작품이 1902년 11월 첫 공연을 앞두고

완성되었다고 기록한다. 오페라 초연이 먼저 열린 뒤 12월 1일 Dansk Koncertforening이 교향곡을 소개했고 , Nielsen이 직접 지휘했다. 초연 장소는 코펜하겐의 Odd Fellow Palæet이었다.

초판 총보와 파트는 1903년 Wilhelm Hansen이 코펜하겐에서 출판했다. 표지에는 Busoni 헌정과 네 악장의 이탈리아어 표제가 함께 인쇄되었다 . 1903년 11월 5일에는 Nielsen이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휘해 작품을 다시 연주했다. 초기 국제 공연의 구체적인 경로는 Royal Danish Library의 공연 목록에 남아 있으며, 이 기록은 교향곡이 코펜하겐의 새 작품 발표에서 유럽 레퍼토리로 이동한 과정을 보여 준다.

소요 시간

자료에 따라 약 30분대 초중반으로 제시된다. Flaminio Online은 30분대의 범위를 암시하고, IMSLP는 판본 평균을 약 32분으로 정리하며, 주요 녹음은 대략 32분에서 35분 사이에 놓인다. 제 1악장과 제 3악장의
긴장선을 얼마나 넓게 잡는지, 마지막 악장의 반복을 어떤 속도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전체 시간이 달라진다. 공연 안내에서는 “약 33분 ”을 대표값으로 쓰되 지휘자와 녹음의 실제 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편성

Royal Danish Library의 CNW 26은 플루트 2와 피콜로를 겸하는 플루트 1,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3, 테너 트롬본 2, 베이스 트롬본 1, 튜바, 팀파니, 현악 5부를 지정한다. IMSLP와 Flaminio Online은 세 번째 플루트를 피콜로 겸용으로 묶고 트롬본을 세 파트로 요약한다. 두 표기는 같은 관현악을
다른 방식으로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 연주 파트에서는 CNW의 테너 ·베이스 구분을 유지하는 편이 정확하다.

Nielsen은 대편성을 사용하면서도 기질의 차이를 악기 수만으로 만들지 않는다. 팀파니는 제 1악장의 폭발과
제 4악장의 활력을 받치지만, 각 악장의 중심은 리듬과 선율의 습관에 있다. 목관은 기질의 윤곽을 가볍게 바꾸고, 호른과 트럼펫은 갑작스러운 압력과 환한 개방을 오간다. 현악은 제 2악장의 둥근 무게와 제 3악장의 긴 호흡을 만들며, 제 4악장에서는 밝은 행진 속에 잠깐의 그늘을 남긴다.

네 악장의 설계

I. Allegro collerico, 담즙질

첫 악장은 갑작스러운 악센트와 성급한 상승으로 시작한다. 짧은 동기가 금관과 현악을 거치며 커지고, 빠른 리듬이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만든다. 담즙질의 인물은 화를 내는 초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제 2 주제에 이르면 관현악이 잠시 폭을 넓히고, 거친 추진력 안에 서정적인 호흡이 들어온다. 다시 처음의 충동이 돌아올 때에는 이미 다른 음역과 화성의 기억을 품고 있다.

형식의 진행은 감정의 설명보다 운동의 변화로 읽힌다. 강한 악센트가 긴 선율을 끊고, 이어지는 크레셴도는
새로운 방향을 열며, 금관의 외침은 현악의 빠른 반응과 맞물린다. 기질 표제는 이 악장이 “분노를 묘사한다 ”는 뜻보다, 음악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II. Allegro commodo e flemmatico, 점액질

두 번째 악장은 앞 악장의 과열을 일부러 늦춘다. 느긋한 걸음과 둥근 선율, 가볍게 밀리는 반주가 무심한 표정을 만든다. 이 악장의 유머는 기운이 없다는 데 있지 않다. 악센트를 강하게 밀지 않고, 악기들이 서로의 빈자리를 기다리면서 시간의 폭을 넓힌다. 공식 해설이 이 악장을 네 기질 중 상대적으로 순수한 무기력에
가까운 부분으로 보는 까닭이다.

목관의 짧은 응답과 현악의 안정된 반복은 완전히 정지하지 않는 평온을 만든다. 작은 움직임이 계속되기
때문에 점액질은 공백이 아니라 자기 속도를 지키는 성향이 된다. 제 1악장의 공격적인 제스처와 비교하면, 같은 오케스트라가 힘의 크기보다 힘을 쓰는 시점을 바꾼 결과가 드러난다.

III. Andante malincolico, 우울질

세 번째 악장은 교향곡의 정서적 중심이다. 긴 선율이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을 오가며, 한 번에 결론으로 가지 않고 여러 겹의 호흡을 만든다. 목관의 선율은 조용한 독백처럼 들리지만, 현악의 지속음과 금관의 어두운 화음이 그 독백을 점차 압박한다. 우울질은 고요한 슬픔의 정지 상태가 아니라, 안쪽으로 파고드는 힘이다.

중간의 상승은 앞선 악장보다 느리지만 더 깊다. 소리가 커질수록 밝아지는 대신, 선율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늘어난다. 종결부에서 음악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순간은 우울질이 절제된 감정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Nielsen은 이 악장을 통해 표제적 심리와 교향곡의 장기적인 긴장을 한 문장 안에 겹친다.

IV. Allegro sanguineo, 다혈질

마지막 악장은 밝은 리듬과 활달한 선율로 교향곡을 다시 움직인다. 빠른 현악, 명료한 금관, 목관의
장난스러운 대답이 앞선 세 악장의 무게를 밀어내는 듯하다. 그러나 현악에 되풀이되는 어두운 주제가 남아 있어, 다혈질의 밝음이 과거의 긴장을 지워 버리지는 않는다.

종결을 향한 크레셴도는 낙관의 선언이면서 기억의 정리이기도 하다. 제 1악장의 충동, 제 2악장의 느긋함, 제 3 악장의 깊은 호흡이 리듬과 음색의 흔적으로 돌아오며, 마지막의 활력은 네 기질을 한 줄로 배열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 얽힌 성향의 결론이 된다. 네 번째 표제가 밝은 표정을 갖더라도, 교향곡 전체는 그 표정 아래에
남은 그늘을 함께 들려준다.

표제와 교향곡 형식의 결합

그림에서 나온 네 이름은 각 악장의 문 앞에 놓인 표지판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 음악은 표지판을 넘어 서로 다른 성향을 교향곡의 대비와 발전으로 묶는다. 제 1악장의 격정은 서정적 주제와 충돌하고, 제 2악장의 여유는 작은 리듬의 움직임으로 유지되며, 제 3악장의 우울은 종결부의 과장된 힘으로 변한다. 제 4악장의 환한 속도는 앞선 악장들이 남긴 기억을 품은 채 끝난다.

이 구조 때문에 “네 가지 기질 ”을 네 개의 고정된 인물 초상으로 읽으면 작품의 내부 변화가 줄어든다. 공식 Carl Nielsen 150 해설은 네 악장에 다른 성격이 섞인다고 설명하며, 표제를 지속되는 심리 상태보다 특정한 방향으로 기우는 경향으로 해석한다. 기질은 악기나 선율에 붙은 라벨이 아니라, 긴장과 이완을 배분하는
작곡의 방식이다.

헌정과 초기 수용

Ferruccio Busoni에 대한 헌정은 초판 표지와 CNW 카탈로그에 명시되어 있다. Busoni가 작품을 작곡하거나 초연했다는 뜻은 아니며, 동시대 음악가에게 보내는 헌정의 형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초연 직후 작품은 Nielsen이 새로 발견한 교향적 힘을 보여 주었지만, 네 기질의 표제가 구체적인 이야기인지 추상적인 음악적 장치인지에 대한 질문도 남겼다.

1903년 베를린 공연은 작품의 밝고 거친 색채를 국제 청중 앞에 놓았다. 이후 코펜하겐과 북유럽 여러
도시에서 공연이 이어졌고, 작품은 Nielsen의 네 교향곡 중 표제가 가장 직접적인 곡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네 악장이 가벼운 성격극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 수용에서 언급된 “거친 색채 ”와 제 3악장의 어두운 깊이는, 제목 뒤에 놓인 교향곡적 야심을 함께 드러낸다.

주요 레코딩

Carl Nielsen의 전곡 녹음과 교향곡 선집에는 제 2번이 자주 포함된다. Herbert Blomstedt와 San Francisco Symphony의 Decca 녹음은 강한 관현악 음향과 넓은 종결로 평가되어 왔고, Adrian Leaper와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Ireland의 Naxos 녹음은 각 악장의 대비를 또렷하게 드러낸다는 평론이 있다. Michael Schønwandt와 Danish National Radio Symphony Orchestra의 전집, Osmo Vänskä와 Lahti Symphony Orchestra의 Nielsen 녹음, Sakari Oramo와 Royal Stockholm Philharmonic의 BIS 음반도
서로 다른 음색과 템포를 제시한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Blomstedt 평론은 제 1악장의 도입을 강하고 밝은 선언으로, 중앙 두 악장을 자연스러운 대비와 색채로, 제 3악장을 깊은 어둠으로 설명한다. Schønwandt 전집에 대한 평론은 목관 독주와 느린 악장의 서정성을 강조하며, Naxos의 Leaper 녹음은 처음 듣는 사람도 악장 간 표정을 파악하기 쉬운 균형으로 소개된다. 이러한 평가는 “어느 녹음이 정답인가 ”보다, 담즙질의 속도와 우울질의 무게, 다혈질의
빛을 각 지휘자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 준다.

주요 자료

Carl Nielsen 150, The early years: 여관 벽의 네 칸 그림, 1901–1902년 작곡, 네 기질의
경향성과 악장 내부의 상호 침투, 1902년 12월 1일 초연.
Royal Danish Library, Catalogue of Carl Nielsen’s Works CNW 26: Op. 16·CNW 26, Busoni 헌정, 정확한 관현악 파트, 1902년 코펜하겐 초연, 1903년 초판과 초기 공연 목록.
Carl Nielsen 공식 타임라인: 1902년 제 2번 교향곡 초연과 작곡가 지휘에 관한 연대 자료.

Carl Nielsen 생가 타임라인: Saul og David 초연 뒤 Dansk Koncert-Forening 공연으로 이어지는 초연 맥락.
IMSLP, Symphony No. 2, Op. 16: 네 악장의 표제와 일반적인 관현악 편성, 작품 서지.

Flaminio Online Nielsen catalogue: Op. 16의 1901–1902년 연대, 이탈리아어 악장 표제와 Wilhelm Hansen 초판 정보.
Carl Nielsen Symphony No. 2 음반 평론, MusicWeb International: 덴마크 라디오 오케스트라와 Blomstedt 계열 녹음의 악장별 음향 및 수용 평가.
Blomstedt Nielsen Symphonies 평론, MusicWeb International: 제 1악장의 에너지, 중앙 악장의 색채, Nielsen 교향곡의 직선적이면서 섬세한 대비.

Vänskä Nielsen Symphonies 2·5 평론, MusicWeb International: 네 기질 표제를 직접적인
장면으로 고정하지 않는 청취와 Vänskä·Lahti의 해석.
Schønwandt Nielsen 전집 평론, MusicWeb International: Danish Radio Concert Orchestra의 전집, 제 2번의 네 기질 구조와 목관 ·현악의 대비.
Nielsen Symphonies 2·6 평론, MusicWeb International: Oramo와 Royal Stockholm Philharmonic의 제 2번 음향, 빛과 그늘이 함께 남는 피날레 해석.
Naxos Carl Nielsen Symphonies booklet: 여관 그림의 일화와 네 악장의 기질 표제에 관한 음반 해설.